

## 영어관계절 구문 번역의 문제

이영옥  
(경희대)

### 1. 서론

굴절어 (inflectional language)와 교착어 (agglutinative language)로 흔히 구분되는 영어와 한국어는 기본어순의 차이를 근간으로 하여 언어표현형식상의 다양한 차이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영어는 명사형 목적어를 수반하는 전치사구 및 다양한 타동사의 발달, 시제를 갖춘 모든 문장 (명령문과 몇 가지 관용구문 제외) 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하여 영어는 명사지향언어 또는 객체지배언어(object-dominant language)라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어는 다양한 종결어미를 동반한 서술어로 문장이 종결되며 주어나 목적어 등이 문맥에 따라 자유로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유연성 때문에 동사지향언어 또는 행동지배언어(action-dominant language)라고 할 수 있다 (Talmy 2000b). 영어의 이러한 명사지향적 성격으로 명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기제가 발달하였거니와 한국어와 비교할 때 영어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관계절로 표현되기 어려

운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맥락에서 상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번역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상응한 의미의 전달보다는 구조적인 대응에 집착하여 영한번역시 영어에서 관계절을 사용한 구문이라 하여 한국어번역에서도 반드시 관계절을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언어 특성과 맞지 않는 어색하고 의미전달이 미흡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언어 사용자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어식의 의미 배열에 집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들거나 영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절 구문을 중심으로 한영간 언어적 특성을 감안한 번역의 문제를 논하고 더 나아가 한국어-영어와 같이 언어유형과 특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언어간의 번역에서 최대한 상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번역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상응 구조 찾기의 한계

번역의 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Bassnett(1991)에 소개된 것으로서 뉴버트(Neubert)가 텍스트 이론에 입각하여 제시한 기호범주 (semiotic category)이다. 그의 이론에서는 인간언어의 기호체계를 통사부, 의미부, 화용부로 분류하여 의미적 등가가 통사적 등가보다 우선하며, 화용적 특성이 통사부와 의미부를 제한하고 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사구조가 일치하더라도 의미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되며, 의미가 일치하더라도 화용론적으로 보아 상응하는 언어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Bassnett, 1991:27).

이렇게 볼 때 영어와 한국어는 의미단위별로 여러 단어의 의미분화가 서로 달리 이루어져 각 단어의 문장내 기능이 일치하는 대응 표현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양 언어에 공통된 품사를 크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 기본 품사를 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과정은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대응되는 표현을 찾아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 번역문을 보도록 하자.

(1) 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Luke 11:11-12)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신 국제역성경 누가복음 11장 11-12절)

먼저 영어에서는 seek과 find라는 별개의 동사로 표현된 것이 한역에서는 '찾다'라는 동일한 동사로 번역되어 양언어간 의미분화에서의 차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도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어에서 seek과 find로 구분되는 명확한 구분이 한국어에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외에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구조상의 특성 때문에 같은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응되는 구조로의 번역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관계절 구문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절 구문은 인간언어에서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지만 각 언어마다 화용론적 상황과 의미표현기능에서 관계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는 번역은 불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절 구문의 특성을 살펴보고 양언어에서 대응되는 구조로 번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양언어의 구조상의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2.1 명사 수식구조

단위명사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어느 언어나 보다 다양한 의미의 명사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특히 명사가 많이 사용되는 영어의 경우 주명사 (head noun)를 중심으로 수식을 가하여 명사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구조가 한국어보다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다. 명사를 확장하는 방법에는 주명사의 앞뒤에 구단위의 추가적인 수식어를 첨부하는 방법과 주명사의 뒤에 시제를 갖춘 동사를 포함한 절로 수식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방법

의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확장방법은 다시 주명사가 있는 경우와 주명사가 없는 경우로 대별되며 주명사가 있는 구단위 확장의 경우는

1. 둘 이상의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구
2. 형용사 수식어를 주명사 앞에 두는 명사구
3. 동사의 어미에 -ing를 부착하여 주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게 하는 구조
4. 동사의 어미에 -ed 또는 동사의 과거분사 어미를 부착하여 주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게 하는 구조
5. to 부정사로써 주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
6. 전치사구로써 주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

가 있다.

주명사가 없는 경우는

1. 동사의 어미에 -ing를 부착하여 품사변화를 가져오는 동명사구
2. to 부정사구
3. 'where to go, how to do it' 등과 같이 의문사와 함께 나타나는 to 부정사

등이 있다.

절 단위 확장 역시 주명사가 있는 경우와 주명사가 없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주명사가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구문이 관계절 구문이고, 주명사가 없는 구문은 동격 구문과 간접의문문의 구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문법적인 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명사구문을 사용하고 있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경우 명사를 수식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은

1. 둘 이상의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구
2. 형용사 수식어를 주명사 앞에 두는 명사구
3. 형용사 수식어와 거의 구분이 안되는 절의 형태를 주명사 앞에 두어 수식하는 구조

등으로 영어와 비교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수식구조를 비교하여 볼 때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는 수식구조 간에 세밀하게 구조적인 분화가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하여 한국어는 수식구조의 다양성이 적다. 그리하여 동일한 수식구조라도 영어와 한국어 간 사용되는 의미영역이 다르므로 번역과정에서 영어에서 사용한 문장구조가 상응되는 한국어표현에서 그대로 대응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 2.2 한국어 수식 구조

영어관계절의 번역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의 수식구조가 영어와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주명사를 가운데 두고 앞뒤에서 다양하게 수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어는 주명사 다음에는 주격이나 보격, 목적격 등을 표시하는 격조사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주명사의 뒤에 추가적인 수식어를 첨부할 수 없는 구조로서 주명사의 앞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수식어를 첨부하거나 이중 주어, 이중 목적어 등으로 동격의 주어나 목적어를 사용해야 한다.

명사 앞에 첨부되는 수식어는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 형용사, 소유격조사 ‘의’를 첨부한 명사, 그리고 서술어로는 사용되지 않는 불변관형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표1에 열거한 바와 같은 불변관형어는 명사의 앞에만 첨부될 수 있는 수식어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수식어와 달리 어미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명사의 앞 자리에만 출현하게 되므로 영어의 관사 (article)나 지정사 (determiner)와 같은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아름다운 새 옷’과 같은 식으로 이들 수식어가 모두 한꺼번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이들 수식어와 함께 다시 주명사 앞자리에 서술어에 관형어미 ‘은, 는, 을’ 등을 첨부한 관계절을 추가할 경우, 예컨대 다음과 같이 주명사와 수식어의 거리가 더욱 멀어져 해독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미구분	예
방향	이, 그, 저, 오른, 왼
한정	아무, 어느, 온, (어떤, 이런, 그런, 저런)
기간	새, 현
수	한, 두, 세, 네, . . .
순서	첫째, 둘째, 셋째 . . . 마지막

표1. 한국어의 의미별 관형어

- (2) [어제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서 산]1 [나의]2 [이]3 [예쁜]4 [새]5 옷을 보세요.

Take a look at [this]1 [beautiful]2 [new]3 dress [of mine]4 [that I bought at a department store yesterday with my friend]5.

한국어의 경우에는 주명사 ‘옷’을 수식하는 요소가 연달아 다섯 개가 나열된 반면에 영어에서는 앞부분에 세 개, 뒷부분에 두 개로 균형잡힌 구조를 이룸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에 대하여 좀더 자연스러운 한국어표현은 (3)과 같은 형태로 문장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 (3) 이 예쁜 옷 좀 보세요. 어제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서 샀어요.

### 2.3 명사중심적 성격의 영어구문

어순이나 다른 문법적 특성에 앞서 영어가 한국어와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영어의 명사중심적 성격이다. 한국어와 비교되는 이러한 영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조상 다른 한국어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만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영어의 명사적 특성을 보이는 예를 몇가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 2.3.1 경동사구문

다음 (4) - (11)에서 대표적인 대응 예를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자동사나 서술형용사로만 표현할 상황을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갖춘 타동사형태로 사용하는 경동사구문이 발달되어 있다.

- (4) a.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혔다.  
b. I've got a sore throat and a blocked (up) nose.
- (5) a. 우리 모두 재미있었다.  
b. We all had a good time.
- (6) a. 그는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b. He has a suspected broken leg.
- (7) a. 보스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  
b. In Boston, they have a lot of snow in winter.
- (8) a. 그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b. He made an attempt to calm down.
- (9) a. 많이 사지 말아라.  
b. Don't make large purchases.
- (10) a. 그는 완전히 회복했다.  
b. He has made a full recovery.
- (11) a. 그는 불분명하게 대답하였다.  
b. He gave a vague reply.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타동사구문이 영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 언어의 기본구조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문장의 기본구조가 한국어는 주어-목적어/보어-동사/서술어의 구조인 데 반하여 영어는 주어-동사-목적어/보어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말미에 나오는 동사나 서술어가 나올 때까지 그 동사나 서술어와 관련된 목적어나 보어를 먼저 제시해 주어야 하므로 동사나 서술어 이전에 너무 많은 요소를 나열하면 의미를 연결하는 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동사, 특히 자동사나 다른 서술형용사가 나열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영어는 동사가 문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문장의 말미에 초점이나 무게를 두는 서술 원리인 문미초점 (End-focus) 또는 문미비중 (End-weight)의 원리에 입각하여 한국어에서는 자동사나 서술형용사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에도 목적어를 갖춘 타동사 구문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동사구문이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가 발달되어 있는 데 비하여 명사구문이 많이 사용되는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나 관계절 구문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동사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경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와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품사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즉,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는 상응하는 의미의 동사로 전환하거나 (8, 9, 10, 11) 서술격 형용사를 사용하거나 (4, 5), 추가로 동사를 덧붙이거나 (4, 6, 7) 해야 하며 이와 함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부사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7, 9, 10, 11).

### 2.3.2 한국어 동사구문에 대응되는 영어 명사구문

영어에서 타동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실과 관련되어 다음 (12)의 예와 같이 주어가 반드시 유정명사가 아닌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 a. (I reached out to shake his hand.) A firm grip grabbed back.

내 손을 받아 세계 움켜 쥐었다.

b. The ride only took five minutes.

차로 가는데 5분밖에 안걸렸다.

c. His glance made them curiously self-conscious about their attire.

그가 흘끗 쳐다본 이후 그들은 이상하게 옷차림에 신경이 쓰였다.

즉,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서술형용사구문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영어에서는 문장의 주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니와 이들 타동사는 대부분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나 동작의 원인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행위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주체는 사람과 같은 유정명사 동작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무정명사의 형태로도 자유로이 설정되고 있다. 이는 다음 (13)과 (14)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어문장의 주어 외에 타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가 자주 출현한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의 출현이 빈번하여 명사형태라는 점에서 주어 자리에 출현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13) a. [My father, who was handing Freud his motorcycle tools-like an assistant to a surgeon-] took a firmer grip on the three-quarters-inch wrench.

4분의 3인치 렌치를 더 세게/딱 움켜 쥐었다

b. [The leaves had begun to change color,] turning the ride through West Newton into a portrait of gold and rust.

웨스트 뉴튼을 지나 차를 타고 가는 길을 황금빛과 갈색빛의 풍경화로 바꾸어 놓았다.

c. He threw an occasional glance my way.

그는 가끔 내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시선을 던졌다/훑끗 쳐다보았다.

(14) a. Big Bertha grabbed Tracy's arm, with an iron grip.

빅버서는 강철과도 같은 힘으로 트레이시의 팔을 딱 움켜 잡았다.

b. During the two-minute ride from the aircraft, the train passes an organic rice farm dotted with picturesque water buffalo, lotus ponds, statues and sculpted hedges.

비행기에서 내려 2분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c. At a quick glance, it seemed as if Morrie were being packed for shipping.

언뜻 보아서는 모리 선생님은 배에 싣기 위해 꾸러놓고 있는 듯 보였다.

영어에는 이와 같이 동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한국어보다 훨씬 다양하여 이들을 번역하려면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전환을 하는 동시에 관련된 구문의 형태도 변형시켜야 하는 것이다.

### 2.3.3 영어 there 구문

영어의 명사중심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구문이 there구문이다. 영어에서는 담화를 시작하면서 화자나 독자에게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there구문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Brevik 2003:225). 이러한 화용론적 용도 외에 영어의 there구문은 동사의 의미를 지닌 명사를 there구문의 보어에 도입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영어의 명사중심적 특성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모두 한국어로서는 영어와 같이 명사로 표현

될 수 없는 문장들이다.

- (15) a. At first, there are a few giggles, but Morrie only shrugs.  
 b. There are estimates of up to 80 villages heavily damaged, and another dozen obliterated.  
 c. She hid her face in humiliation, but there was no escape from the cameras.  
 d. There was the usual blue-white flicker in the kitchen.  
 e. There is a knock at your door.

(15)에 예시한 there구문들을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명사로 표현된 giggles, estimates, escape, flicker, knock 등을 동사의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영어에서는 이들 상황에 관하여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려고 할 때 적절한 주어를 찾기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 때문에 there구문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의 의미를 유지한 이러한 명사구문이 사용되는 대신 적절한 주어와 함께 동사로 표현하거나 주어를 생략하는 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 (16) a. 처음에는 몇녀석이 깔깔거렸지만 . . . .  
 b. 최대 80개 마을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c. . . . 카메라를 피할 수는 없었다.  
 d. 늘상 그랬듯이 부엌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e.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네.

### 2.3.4 무생물주어 타동사구문

이미 인용한 예문 (12)에서 유정명사가 아닌 무생물 또는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전환을 통하여 어떤 사실이나 상황, 동작 등 동사의 의미를 유지한 채 주어로 사용되는 구문을 보았는데, 이는 영어의 구문적 특징 외에 인지적으로 상황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영어에서는 어떤 상황에 관련하여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주어로 할 수 있는 타동사가 한국어보다 훨씬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같은 상황에 대하여 한국어에서는 타동사보다는 사건의 선후관계만을 보이는 정도의 자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예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 (17) a. Perhaps the prestige of a future doctor attracted him.  
 어쩌면 의사라는 내 특전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몰라.
- b. John's going to the store bothered me.  
 존이 그 가게에 간 것이 신경이 쓰였다.
- c. This realization brought me to one of my first questions.  
 이것을 깨닫고 나니, 내가 처음 제기한 질문 한가지가 떠올랐다.
- d. Business carried him to London.  
 그는 사업차 런던에 갔다.
- e. A stone caught me on the nose.  
 돌멩이 하나가 내 코에 떨어졌다.
- f. Violence in the past few days is believed to have claimed dozens of lives.  
 지난 수년간 폭력사태로 수십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 g. His continual lateness cost him his job.  
 자주 지각을 하더니 그는 직장을 잃고 말았다.
- h. His illness diminished his strength.  
 그는 병이 들어 힘이 약해졌다.
- i. Poverty and hunger drove him to steal.  
 돈이 없고 배가 고파서 그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 j. Two days later found me at Rome.  
 이틀 후 나는 로마에 있었다.

이밖에도 저자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동사들이 무정명사를 주어로 하여 근본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타동사로써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account, accustom, acquaint, add, admit, afford, alarm, allow, appeal, argue, arrest, assume, assure, astonish, avert, awe, bear, beat, beg, benefit, blunt, breed, bring, bring about, burn, compel, compete, concern, condemn, confine, conspire, conjure up, contribute, convince, cool, create, cross, daze, deceive, decide, defy, demand, depress, deprive, determine, discourage, disrupt, distinguish, divide, do, draw, earn, eat, empower, encourage, end, engage, engulf, enrage,

ensure, entitle, escalate, escape, evade, evoke, exceed, excite, exhaust, explain, fail, fan, fetch, fill, finish, flood, follow, force, frighten, fuel, gain, get, give, give rise to, give way to, gut, hamper, harm, haunt, have, help, hurt, identify, impress, improve, include, indicate, infuriate, inhibit, inspire, interfere, intrigue, injure, invite, involve, keep, kill, know, kindle, lead, leave, look, lure, make, mean, mystify, need, oblige, obscure, obsess, occasion, occupy, offend, offer, outrage, overwhelm, paralyze, pass, persuade, plague, please, precipitate, preclude, predispose, prepare, prevent, produce, promise, prompt, prove, provide, provoke, pull, push, put, puzzle, raise, rank, reach, reduce, reignite, reinforce, relieve, remind, remove, render, report, require, result, return, reveal, rob, save, say, scare, see, set, shake, shape, shock, show, soften, solve, spur, start, sting, stop, strike, submerge, suggest, surprise, take, teach, tear, tell, threaten, transform, trim, turn, undermine, underscore, unleash, usurp, violate, win, witness, worry

### 3. 명사 관계절의 한국어번역

한국어에서 영어에서와 같은 명사중심구문의 상응표현을 만들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에 출현해야 하므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명사구문들이 일렬로 나열되어야 한다.
2.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이 관계절이든 단일 형용사이든 모두 동일한 수식어미로 표현된다.
3. 한국어에서는 주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이 모두 주명사보다 앞서야 하므로 영어에서와 같이 주명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다양하게 수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4. 한국어에는 영어에서 명사구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타동사, 전치사, there구문 등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들 요소가 관계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상응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5. 한국어에는 영어에서 단독 형용사로 명사 앞에 출현할 수 있는 단어,

즉 관형어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표1 참조). 예컨대, no, few, little, some, any, only, every, each, many, much, most, all 등과 같은 존재유무, 수량 등을 지칭하는 단독 수식어나 increasing, better, full, complete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표현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수식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6. a long-legged, long-haired 18-year-old born of Dominican parents; a cloud-dappled sky; money-reckless women; hair-raising stunts; the long-sought treaty 등과 같은 복합수식어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명사 앞에 간략하게 둘 수 있는 수식어의 사용에 한계가 있다.

영한번역의 문제는 무엇보다 두 언어간의 구조적, 화용론적인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제 영어관계절 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3.1 다른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구문의 번역

영어에서는 관계절이 수식하는 선행 명사보다 뒤에 위치하게 되므로 선행 명사가 다시 다른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용이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9) a. She's the slowest driver I've ever seen.
- b. He was the most efficient store lay-outer I've ever known.
- c. I've got this clever little gadget which opens jars that I can't open myself.

(19)의 예들은 모두 관계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관계절을 이끄는 선행 명사가 다시 다른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 하나의 명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동시에 수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수식어가 명사의 앞자리에 위치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중 수식구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중 수식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20)과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된다.

- (20) a. ?그 여자는 내가 이제껏 본 가장 느린 운전자이다.  
 b. ?그이는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게 진열 전문가이다.  
 c. ?나는 내 스스로 열 수 없는 병을 여는 이 조그만 도구를 가지고 있다.

(20)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영어구문의 관계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 한국어에서는 수식하는 부분이 모두 주명사의 앞에 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식어미인 ‘은, 는, 을’ 등을 부착해야 하므로 동일한 형태의 수식어가 중첩하여 나올 수 밖에 없다. 동일한 형태의 수식어가 주명사를 중첩하여 수식하게 되면 각 수식어에서 주명사와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식을 위해 생략된 요소를 주명사를 만날 때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구문의 생성이나 해독과정에서 부담을 주게 된다. 즉, (21)에 보이는 바와 같이 (20a)에서 주명사 ‘운전자’는 두 번의 수식과정을 거치면서 해석이 유보되게 되므로 단일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고 해독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21) 내가 이제껏 (운전자)를 보았다; 그 여자는 가장 느린 (운전자)이다.

이는 주명사를 중심에 두고 앞과 뒤에서 형용사와 관계절로 따로 수식을 할 수 있는 영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한국어에서는 이 경우 (20')과 같이 바꾸어 이중적인 수식구조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 (20') a. 그 여자는 내가 이제껏 본 중에 가장 느리게 운전을 한다.  
 b. 그이는 내가 이제껏 알았던 누구보다 가게진열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c. 이 조그만 도구를 써서 도저히 열 수 없던 병을 열 수 있었다.

(20'a)와 (20'b)에서는 첫번 수식구조를 형용격에서 부사격으로 바꾸어 주어 주명사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 주었다. (20'c)에서는 주절의 구조 자체를 바꾸었으나 영어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된 의미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영어에서는 동사의 의미를 유지한 채 명사로 품사전환을 하는 장치가 상당

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거나와 (22)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사에 -er이나 -ist등 사람을 지칭하는 어미를 부착하여 명사화하는 용법은 그 대표적인 구문이라 할 수 있다.

- (22) a. I am a great believer in the fundamentals.  
나는 근본주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 b. Mr Bush is an avid campaigner.  
미스터 부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 c. That Debra, isn't she a terrible cook?  
데브라 그 여자, 요리솜씨가 형편없지 않나?
- d. Mr. Sago is a conservative dresser.  
미스터 사고는 옷을 보수적으로 입는다/옷입는 것이 보수적이다.
- e. It must be rough being a new employee!  
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겠다.
- f. Diana loved going to the theater and was a great opera fan.  
... 굉장히 오페라를 좋아했다.
- g. Eddie wasn't much of a churchgoer.  
에디는 교회에 별로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
- h. Ever since then I have been a lover of everything that is French.  
그 이후로 나는 프랑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하게 되었다.

(22)에 나타난 -er 명사화 구문에서 명사 앞에 나타나는 수식어는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는 모두 부사어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er 명사화 구문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행위가 아닌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나타내므로 단순히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문을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컨대, driver, believer, campaigner, cook, employee, lover 등을 ‘운전자, 신봉자, 운동가, 요리사, 회원, 애인’ 등으로 번역하게 되면 영어의 경우보다 한 단계 더 고착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넘어 하나의 고정된 직업이나 사상을 가진 대상으로 의미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단일명사화 된 주명사를 관계절과 유사한 구조로 변형시켜 주어야 하므로 다시 관계절이 추가될 때 이중관계절의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써 해독력 (readability)이 저하되는 것이다.

## 3.2 한국어동사구문에 상응하는 영어명사구문의 번역

영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등 한국어보다 명사구문이 출현해야 하는 문장내에서의 위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라면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나 서술형용사 구문으로 표현할 상황을 목적어로서 명사구문을 갖춘 타동사구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관계절은 수식을 받는 주명사가 한정적이어서 추가적인 수식으로서 한정할 필요가 없는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절과 부정대명사를 주명사로 하여 수식이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제한적인 용법으로 구분된다. 특히 동일한 관형어미를 첨부한다는 점에서 관계절과 동격절의 구분이나 구와 절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한국어에서는 영어보다 관계절의 형태가 훨씬 제한적이다.

모든 수식어가 주명사의 앞에 나열되어야 하는 한국어의 경우 관계절의 주명사는 의미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일반명사나 다음 (23)과 같은 부정대명사 또는 (24)와 같은 부정부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식어를 통한 의미 추가가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영어에서도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결합한 what이 유사한 예가 될 것이다.

(23) 부정대명사: 이[사람], 곳, 데, 것, 듯, 바, 수, 중, 줄, 뿐, 따름, 속, 등,  
때, 판, 날, 격

(24) 부정부사: 만큼, 대로, 수록, 때문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부정대명사나 부정부사를 수식하는 절이나 구의 형태가 일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같으므로 영어에서와 같은 명확한 관계절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영어에서는 단일형용사나 동사의 -ing, to-부정사, 전치사구로 표현되는 수식구문도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사에 관형어미를 부착하여 관계절의 형식과 구분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5) a. Foreigners are amazed at the remarkable progress of Korean industries.

외국인들은 한국의 산업이 괄목할 만큼 발전한 것에 놀란다.

b. She was deeply shocked at the news of her mother's death.

그 여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c. In certain areas, there may be only limited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tourism.

... 제한적으로 관광을 개발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d. At worst, Israel's action may lead to increased friction,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의 공격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 a four-year-old Lebanese boy

레바논의 4살 된 남자 아이

f. The violence came amid heightened tensions between Israel and Syria, following Israel's raid.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던 후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어났다.

#### 4. 결론 및 요약

이상과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영어 관계절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영어 관계절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행사가 수식을 받는 경우는 둘 이상의 문장으로 풀어 준다.

예: Take a look at this beautiful new dress of mine that I bought at a department store yesterday with my friend.

이 예쁜 새 옷 좀 보세요. 어제 친구하고 백화점에서 샀어요.

2. 동사의미의 명사를 보어로 하고 있는 there구문을 포함한 경우 이를 동사로 풀어준다.

예: He found himself in a role out of which there was no escape.

그가 한 가지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빠져 나올 도리가 없었다.

3. 명사구의 일부만을 관계대명사로 하는 경우 두 문장으로 표현한다.

예: A large river, the name of which I forget, runs through the city.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큰 강이 그 도시의 중앙을 흐르고 있다.

4. no, few, little, some, any, only, every, each, plenty, many, much, most, all 등의 존재 또는 수량 지칭 형용사가 부착된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은 이 중주어, 이종목적어 등의 동격이나 동사구 또는 서술형용사구를 추가하거나 부사절로 바꾸어 준다.

예: It is the only region in the world where there are fewer women alive than men,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적게 살고 있는 지역이다.  
There are many Australian citizens who will fill the office as well or better than Lord de l'Isle will fill it.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으로서 될경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잘 그 직을 수행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많다.  
but there were plenty of people like Ludendorff who had absolutely no kind of family or anything behind him.  
그러나 루덴돌프처럼 가족도 무엇도 전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많았다.  
There's no other guy in the National Football League who weighs 380 pounds with the athletic ability and the quickness that he has.  
그 선수만큼 전국축구연맹에서 체중이 380 파운드 나가면서 그렇게 기량이 좋고 발빠른 선수는 아무도 없다.

5. whose의 경우는 상응하는 관계절구조가 없으므로 두 개의 등위 절로 만들어 주거나 관계절의 구조를 달리한다.

예: She makes pastry whose preparation takes an entire day.  
그녀는 빵과자를 잘 만드는데 그걸 만들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  
Son, how can anyone whose brother died protecting us from communism even dream of going to that kind of school?  
얘야, (자기) 형이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느라고 죽기까지 한 처

지로서 어떻게 그런 학교에 갈 생각을 할 수 있는나?

6. 한국어에서 주로 동사나 서술어로 표현되는 요소가 명사화되어 관계절의 선행사로 표현되는 경우는 명사를 동사나 서술형용사로 풀어주어야 하므로 이를 목적어로 하였던 동사도 바뀌게 된다.

예: Help me to extend the same kindness and consideration to others that I would like them to extend to me.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사려깊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7. 부정명사를 주어로 받는 타동사가 사용되는 관계절의 경우는 관계절 내의 부정명사 구문을 인과관계의 동사구로 전환한 적절한 한국어구문으로 대치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예: Benefit from the privileges that membership can bring.

회원가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Unfortunately, I had chosen a table that put me next to a good-looking, ruddy-faced Englishman whose tweed suit gave the impression that he must at home have been a hunting man.

하필 내가 고른 테이블 옆자리에는 잘 생기고 혈색 좋은 영국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가 입은 트위드 양복으로 보아 고향에서 사냥 깨나 했을 것 같았다.



참고문헌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수동구문을 중 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 이영옥. 2001a. 최적영문표현연구: 명사구문편. 서울: 연학사.
- 이영옥. 2001b.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 이영옥. 2002. 한국어와 영어간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3(1): 59-81.
- Barlow, Michael and Susan Kemmer. 2000.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CSLI Publications.
- Bassnet, Susan. 1991.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Bolinger, Dwight.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Brevik, Leiv Egil. 2003. Relative clauses and locative expressions in existential sentences. Pragmatics 13.2, 211-230.
- DeLancey, Scot. 2001. Functional Syntax, LSA Summer Institute, UC Santa Barbara.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Im, Sung-Chool. 2002. Typological Patterns of Motion Verbs in Korean. Discourse and Cognition 9(1):123-150.
- Kim, Young-Joo. 1997. Verb Lexicalization Patterns in Korean - with Focus on Motion Conflation in Complex Verb Construction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I, Sohn and Haig (eds.). 495-511. Stanford: Stanford Linguistics Association.
- Kuno, Susumu. 1971. The position of locatives in existential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2:333-378.
- Lee, Sook-Hee.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Lee, Young-Ok. 2003. Korean Location Movement Expressions: A Typological Approach in Comparison with English. Presented at 2003 Summer Harvard Symposium of Korean Linguistics.
-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 B. and S. Pinker. 1991.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f Cognition on Lexical and Conceptual Semantics. Cognition 41: 1-7.
- Levin, B., G. Song, and B. Atkins. 1997. Making Sense of Corpus Data: A

- Case Study of Verbs of Sou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2(1): 23-64.
- Neubert, Albrecht. 1985. *Text and Translation*, Leipzig: VEB Verlag Enzyklopadie.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lobin, Dan I. 1997. Mind, Code, and Text. In Joan Bybee, John Haiman and Sandra A. Thompson (eds). *Essays on Language Function and Language Typ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Co.
- Talmy, Leonard. 1988.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12: 49-100.
- Talmy, Leonard. 2000a.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 Talmy, Leonard. 2000b.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A: MIT Press.
- Wierzbicka, A. 1986. What's in a Noun? (Or: How Do Nouns Differ in Meaning from Adjectives?). *Studies in Language* 10: 353-389.

K C I

[Abstract]

## Translation of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into Korean

Lee, Young-Ok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Korean and English modification structures on the basis of the two languages' typological differences that can be summarized as object-dominant language and action-dominant language, respectively. The object-dominant characteristics of English are illustrated with examples of the light verb constructions, nominalization constructions, *there* constructions, and inanimate subject transitive verb constructions. Practical guidelines for translation of relative constructions between the two languages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the two languages' differences in modification system.



▶Key Words: modificatio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typological differences, object-dominant language, action-dominant language